

달라지고 있는 포교 현장... “전략적 포교 필요하다”

‘포교 정책 워크숍’

포교원 중앙총회 천리순례단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하며
성공 사례 공유하고 의견 나눴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총회,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공동 주최하는 포교 정책 워크숍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의 길’이 10월14일 경남 창원 부곡로알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는 100여 명 스님과 재가자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집작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삼보사찰 순례를 시작한 지 14일차인 이날 천리순례단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포교의 미래’에 대해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우리 스스로 간절하지 않으면 원력과 신심이 나오지 않는다”며 “우리 불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옷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진하면 불교 중흥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앙총회의장 정문스님도 “승가는 평등 무차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대중공사로 어떤 의견도 존중하고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받아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새 길이자 건강한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포교원장 범해스님도 개회사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우리의 고민을 녹여낸다면 가치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불교계 언론에서 주목한 포교 사례’ 영상을 함께 관람하고 포교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과 사찰들의 성공 사례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부산 쿠무다는 ‘도심에서 문화포교의 꽃을 피우다’, 김해 동림선원은 ‘명상으로 미래불교의 희망을 키우다’, 구례 화엄사는 ‘사찰, 지역 상생의 길을 열다’ 등을 주제로 각각 포교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적극적 언론 홍보를 통해 화엄사의 존재감을 알린 제19교구본사 주지 덕문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어둡지 않은 않다”며 “전략적 포



10월14일 경남 창원 부곡로알관광호텔에서 열린 포교정책 워크숍에서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불교가 각자 자리에서 제 옷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진하면 불교 중흥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심과 떨어진 산사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연 환경 속 천년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포교가 가능하다는 것. 덕문스님은 “지역 요양원과 다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등 각 사찰에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 지역 사회 신뢰 속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상 프로그램과 줌(Zoom)을 활용한 어린이 포교를 주제로 발제한 동림선원 명상지도자 천조스님은 “법회라는 말 대신 명상학교라는 말을 쓰고 집중력 강화와 인성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강점을 소개하며 거부감을 줄이고 있다”고 했으며 쿠무다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주석스님은 불교문화콘텐츠를 배본 활용한 성

공 전략을 발표했다.

포교정책 워크숍 제3부에서는 포교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라이브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으며, ‘수행의 길, 포교의 길’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이날 토론에서 무엇보다 적극적 포교, 다가가는 포교를 강

조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은 “직접 찾아 나서 포교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 발로 사찰을 찾아오는 신도를 조차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교에 대한 관심에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포교로 이어질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총무기관과 중앙신도회 등 핵심 기관에 대한 교계 언론 질의도 쏟아졌다. 주운식 중앙신도회장은 신도회의 조직적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지금 당장은 새로운 신도를 찾아 나서기 보다 기존의 신도들을 잘 살펴 신도회를 활성화하고 조직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는 제25교구본사 주지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 제16교구본사 주지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중앙총회 포교분과위원장 법원스님, 포교부장 선업스님, 주운식 중앙신도회장, 방장덕 포교사단장, 수미산 원정대 윤재용 교수, 안원민 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이 참여했다.

창녕=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사친 김명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천리순례에서 만난 사람들

“천리순례하며 형동생 됐어요”

■ 김호준 전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
안현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고령의 참가자가 다수인 순례단 가운데 2030세대 젊은 참가자들이 눈에 띈다. 때로는 눈매의 김호준 전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30)와 언제나 싱글벙글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안현민(24)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이번 순례에 참가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다. 전혀 다른 이미지의 두 사람은 순례단 맨 뒤에서 힘을 불어넣는 우바새 그룹이다. 곳곳이 걸으며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친한 형동생’이 됐다.

안현민 회장은 “군대 행군만큼 힘들다”면서도 “호준이 형이 있어 외롭지 않은 않다”고 했다. 안 회장은 “불보 법보 승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천리를 순례한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참가하게 됐다”며 “체력적으로 힘들긴 해도 쉬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순례 5일차에 형동생이 된 김호준 선수와 안현민 회장.

취하다보면 아픈 것도 사라진다”고 해맑게 웃었다.

들르는 사찰마다 불전을 하기 위해 두둑이 봉투를 챙겨왔다는 김호준 선수는 “싫어하는 일을 완성했을 때 무언가 깨달음을 얻곤 했던 것 같다”며 “같은 맥락에서 처음엔 자기 성찰의 목적으로 참여했지만 사찰마다 예불하고 불전하며 그리고 존경하는 호산스님(김호준 선수는 호산스님이 창립한 상월선원 청년회 제1기 출신이다)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불심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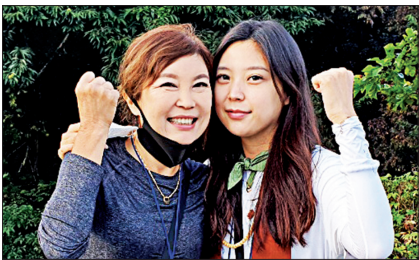
남원=박봉영 이경민 기자

“딸과 평생 한번뿐일 삼보사찰 순례”

■ 하정수 박선민 모녀

삼보사찰 천리순례 고된 일정 가운데서도 환한 웃음을 잃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 하정수(56), 박선민(31) 씨다. 순례단 내 힘에 버거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한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은 언뜻 자매 같아 보이지만 사이좋은 모녀 사이다.

천리순례 참가 계기는 어머니 하정수 씨 제안에서 나왔다. 천리순례단 모집 소식을 들은 하 씨가 두 딸에게 함께 가자 했던 것. 평소에도 인도와 스리랑카 등 성지순례를 함께 다니던 세 모녀였기에 두 딸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다만 스케줄 논의를 끝까지 직장 일로 바쁜 첫째 딸을 제외하고 둘째 딸만 참가 신청서를 냈다. 두 모녀는 순례를 위해 한달 내 중랑천과 한강 등 하천 산책로를 함께 다니며 모의 연습도 했다고. 어머니 하 씨는 “평생 한번 할까 말까한 삼보사찰 순례를 꼭 딸과 함께 하고 싶었다”며 “막상 와보니 힘들어도 오길 잘했다 싶다”고 했다. 하



삼보사찰 천리순례 유일한 모녀 참가자. 하정수 박선민 모녀.

루 평균 6~7시간을 걷는 고된 여정이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길을 걷다보니 이유없이 불안 증세를 나타내며 하 씨를 괴롭히던 공황장애 증상도 어느새 사라졌다고. 하 씨는 “걷다 보면 어느순간 혼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딸 박선민 씨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면서 머릿속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다”며 “언젠가 다시 어머니와 언니와 함께 건강히 두 발로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령=박봉영 이경민 기자

“부부 아니고 50년 수행도반으로 전습니다”

■ 윤재웅 이세옥 부부

남편 윤재웅 동국대 교수를 바라보는 이세옥 씨 눈빛에서 꼴이 똑똑 떨어진다. 고단한 순례 일정에도 짜증 한 번 안내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를 아끼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7살 소꿉질 시절부터 만난 50년 부부 사이다. 지난해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완료한 윤 교수의 권유에 평소 걷기를 좋아하던 이 씨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리면서 50년 차 부부가 이제 수행 도반으로 순례길에 올랐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 쌀쌀해지는 날씨에 차가운 길 바닥에서 자고 하루 장거리를 걸어야 하는 고된 순례 생활. 주변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 쉬운데 이 부부는 서로 소리 한번 높이는 법이 없다. 부인 이세옥 씨는 “힘들고 불편한 건 있지만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며 오래도록 남편하고



삼보사찰 천리순례 유일한 부부 참가자. 윤재웅 이세옥 부부

함께 걷는 이 길이 좋다”며 “특별히 무언가를 얻으리란 생각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조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완주해야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남편 윤재웅 교수도 “부부라고 보다는 50년 수행 도반으로 왔다”고 했다. 윤 교수는 “평소에도 아침 산책을 하며 생각을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한다”며 “천리순례는 묵언 행선하며 보다 긴 시간 동안 걷기를 하는 만큼 복잡한 생각을 가급적 버리고 그 빈 공간을 보다 풍요로운 생각들로 채워가려고 한다”고 했다.

창녕=박봉영 이경민 기자

※ (주)유일&S는 중앙승가대 동문사찰 시공시 **충공사비의 5%**를 중앙승가대학교 충동문화 발전기금으로 기부합니다.

난방문화의 혁신과 해결 병렬온수 난방시스템

✓ 철거/이사 없이 당일시공

- 장소 구애없이 난방이 필요한 곳이라면...
- 기존 모든 보일러 사용가능

✓ 안전성/난방효율성 최고

- 전기용품(필름, 판발) 사용에 고장, 위험 제로
- 기존 제품 대비 난방에너지 **50%** 이상 절감

✓ 적용대상(사용처)

- 신축/사찰/선박/휴양·복지시설/컨테이너/리모델링 주택/캠핑카 등등

유일I&S 온수난방시스템 장점

- 기존 바닥에 병렬온수배관로 난방 시공함으로서 완성도 및 효과가 2배
- 슬라브와 바닥재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 단열 및 차음 효과 탁월
- 간단한 작업공정으로 공사기간 단축
- 병렬온수 난방시스템은 재질부터 KS규격과 ISO인증을 통과한 검증된 시스템
- 건물의 손상없이 보수가 용이하며 반영구적
- 건물의 손상 없이 철거 및 교체가 수월해 유지보수비용 절약
- 100% 물만을 사용한 건식온수배관의 복사열로 난방함으로서 건강에도 유익
- 따뜻한 대류 공기 순환으로 옷풍 문제 해결

(주)유일I&S가 시공한 곳

서울 불교상담개발원(개운사 내), 경복사, 능인정사, 원음사, 서울시청다산콜센터, 성통사, 반야정사, 연꽃어린이집, 장안사, 북한산 노적사, 관악산 연주암, 관악사, 관악산 약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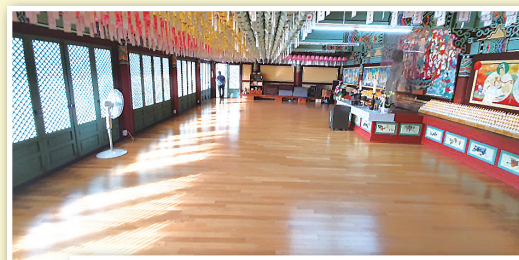
경기 의왕 청계사, 분당 원적정사, 연천 지장암, 양주 지장사, 화성 지장암, 태원사, 광주 백련암, 수원 영통사, 남양주 정각사, 남양주 광동중학교, 용인 서광사, 대덕사, 법향정사, 무드라선원, 조계종장애인지원센터, 의왕경찰서 경승실, 인천 녹야원, 도봉산 원효사, 안성 무상사, 인천 황룡사, 정토사, 강화 선원사

충청 예산 법원사, 아산 해명사, 보은 관자재암, 문수사, 대안 태국사, 대전 무량사

강원 강릉 용연사, 동해 삼화사, 철원 장안사, 영월 명정선사

전라 장성 백양사, 홍동사, 장수 성관사, 옥과 성룡사, 함평 용천사, 익산 삼곡사, 남원 극락암, 용주암, 구례 구충암, 광주 만덕사, 광덕사, 진도 약사사, 서귀포 탐라선원

경상 칠곡 송림사, 경주 보광사, 거창 부다선원, 하동 용주사, 진주 명성암, 진주 관음사, 봉화 관음암, 구마선원, 대가사, 의령 구룡사, 성주 보광사, 부산 구룡사, 대구 용화사, 반야정사, 문경 개운사, 거제 장흥사, 울진 지장사, 김천 영명사, 칠곡 장흥사, 달성 유가사 도성암



건축 문화
혁신·난방
에너지 해결



온수난방시스템
(주)유일I&S

T 031-8039-7727 H 010-2484-1797 E khy1794@naver.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분당테크노파크 C동 210호